

월요광장

밸런타인데이를 잊은 남편과 대보름을 잊은 아내



정유진
코리아컨설팅 대표

시작은 낭만적이었다. 글로벌한 상업적 이벤트에 떠밀 리기는 했지만 제법 오래된 결혼생활에 로맨스를 더해 보자는 생각이었다. 뻔하긴 해도 수제 초콜릿 한 상자와 마시고 싶었던 샴페인을 자동차 트렁크 안에 숨겨 놓았다. 2월 14일, 남편은 저녁에 미팅이 있다며 밖에서 식사 까지 하고 온다고 했다. 설마 일부러 하는 장난이겠지 싶어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아이쿠, 이럴 수가! 저녁을 먹고 들어온 남편이 건네는 초콜릿 봉지 하나. 그나마 그 초콜릿은 업무상 갖던 식당에서 준 선물이라고 하나...

서운함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특별한 기념일에 관촉용으로 받은 초콜릿으로 통을 치기까지. 남편에게 영도라져 한마디 건네자 오늘은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란다. 한국 문화를 잘 아는 외국인 남편이 알미었다. 아무튼 모든 매체에서 한껏 사랑으로 넘쳐나는 밸런타인데이는 내 20년차 결혼 생활에 어찌까지 낯설었다. 설 없는 남편을 원망하자 중년의 위기까지 떠오르며 슬그머니 화가 치밀었다. 그 다음 날 내내 뼈저 하루를 보낸 뒤 한밤이 되어서야 아차 싶었다. 이날 정작 가족이 다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부럼 하

나 깨 먹지 못했으니. 나는 한낱 상술로 부풀린 밸런타인데이 때문에 힘들게 일하고 왔을 가장엔 서운해하느라 아름다운 우리의 세시 풍속 정월 대보름의 저녁을 잊은 채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 모두가 지극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세상. 집의 의미와 건강한 일상이 소중해진 요즘 마음에 더와 닿는 기념일. 겨우내 무탈하게 집을 지켜 주신 성주님께 감사함을 담아 올리는 밥상. 겨울을 나기 위해 묵은 나물들을 먹고 앞으로 맛보게 될 봄의 싹들을 기대하는 밥상. 어디 그뿐인가? 내 뒤를 재치 넘치게 팔며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보름달에 담긴 낭만을 '누군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날.

나는 2022년 정월 대보름을 '나 홀로' 밸런타인데이 소동으로 정신 줄을 놓고 그냥 흘려보냈다. 휘황찬란한 상업적 소비문화와 남편의 무심함을 맞으면서도 사실상 기대에 맞는 보상을 바라다 화가 났을 거란 생각에 미처자 절없는 자신에 더욱 화가 났다. 생각이 생각을 날듯 본질을 잊은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다 보면 눈발에서 눈을 굴리듯 화는 계속 커져 간다.

불교 교화 중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다. 고승과 제자 스님이 길을 가다 개울을 건너야 했다. 두 사람은 거센 개울을 건너려다 이미 물에 빠졌는지 옷이 젖은 채 개울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여인을 보았다. 고승은 난처함에 빠진 여인을 업고 개울을 건넜다. 그 모습에 의심과 실망감을 느끼고 팔내 화를 참지 못한 제자는 한밤이 되어서야 고승에게 물었다. 수행자로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며 따진 것이다. 고승은 조용히 제자에게 답

했다. "나는 낮에 개울을 건널 때 그 여인을 내려 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아직까지 그 여인을 업고 있느냐." 행여 이 글이 밸런타인데이보다 정월 대보름이 더 중요하다든 뜻으로 읽힐 수도 있겠다. 과연 나조차 이렇게 쉽게 잊어버린 정월 대보름이니, 앞으로 사라져 갈 세시풍속이 우려되긴 한다. "내 더위 사라!"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해학이 담긴 세시풍속을, 우주여행을 경험하게 될 MZ세대와 그 뒤를 잇는 알파세대들이 기억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설 수도 있다.

하지만 쓸데없는 생각인지도 모르겠다. 소유보다는 공유,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한다는 감각적이고 아무진 MZ 세대는, 오곡밥·나물·부럼을 밀키트 상품으로 여기고 동근 보름달 사진을 찍으며, 내가 화를 내다 놓친 정월 대보름을 그렇게 즐겼다고 한다. 그러나 세시풍속의 아름다운 미덕이 담긴 정신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계속 이어질 것이다.

사회의 세시풍속과 한 개인의 생애주기로부터 비롯된 중요한 기념일은 사회와 개인의 통념에 의한 기대와 보상을 견어 낸다면 계속해서 그 의미를 발현하며 잘 지켜질 것이다. 혹시 이미 지나친 기념일에 대한 섭섭함이 남아 있다면 그냥 잊으라. 올해 밸런타인데이를 잊은 남편과 정월 대보름을 잊은 나는 서로 비굴비굴한 걸로 치기로 했다. 앞으로의 기념일은 많다. 서로에 대한 보상 기대는 견어 내고, 그날이 기념하는 본질적 의미와 정신을 기억하며 더불어 공유하면 좋겠다. 어찌면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기념의 본질은 기억하는 정신일 것이다.

수필의 향기

겨울 꽃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지독한 대인 기피증이라도 앓고 있는 걸까. 담장 옆에 서 있는 녀석이 알미다. 봄기를 호시절엔 꼼짝도 않더니, 무스 오기를 꼬장꼬장 부리는지, 눈을 허열게 뒤집어쓰고서야 밤새 몇 송이를 붉게 피었다. 부끄러워 한겨울을 택한 걸까. 아니면 자신의 고고한 빛깔을 다른 꽃과 비교당하기 싫은 자존심 때문일까. 앞마당 동백꽃이 유난히 시달다.

녀석은 나를 무척 닮았다. 낯설거나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는 것 말이다. 호젓하고 한적한 곳이 좋다. 간혹 지인들이 따들려도 좋다. 실상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행복할 때가 더 많아서 스스로 나를 따들리며 바지런히 산다. 자전거도 혼자 타고 낚시도 혼자 하고 여행도 혼자 한다. 어느 장터에서 혼자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혼자 소주잔을 기울인다. 대신 구름이나 바람과 함께 걷고, 나무와 새들과 같이 깔깔거리고 눈과 비와 나란히 숨 쉰다. 그들과 더불어 잔다. 그렇게 헤어지면 집 앞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수줍은 많은 사내다. 동백을 보고 있으면 꼭 나를 보는 것 같다. 일부러

외톨이같지 자처하는 고집불통, 바닷가 동백을 볼 때면 어쩔 내가 동백을 빼앗았다는 생각이 든다. 내 안에 수많은 동백이 뿌리를 단단히 박고 있음이다.

그래서 동백을 조금 알 것도 같다. 복잡한 세상, 혼자 사는 것도 썩 괜찮다. 겨울 꽃은 그레야 한다. 햇빛을 향해 양털을 부리지도 않고, 벌 나비들을 유혹할 일도 없이 혼자 피어야 겨울 꽃이다. 바람이 모질고 세찰수록 더 붙어지는 꽃, 백설을 머리에 이고도 몸속의 붉은 색을 띄우는 자기만의 단단한 결기가 있어야 한다.

어느 시인은 지독한 욕망이 이 겨울 꽃을 피우려고 했지만 그건 진짜 아픔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차가운 겨울에 게다가 붉디붉은 자신을 안에서 밖으로 툭툭 꺼내 놓을 때의 고통, 그리고 툭툭 떨어진 자신의 붉은 생모가지를 보아야 하는 것은 또 얼마나 지독한 일이나.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 꽃잎은 빨갛게 머미 들었소."

동백을 보고 있으면 이마저 씨의 노랫가락이 들려오고, 학창시절 읽었던 소설에서, 참 조숙했을 점순이의 모습이 후각적 이미지로 다가온다. 무엇에 떠밀리듯 펍 쓰러졌는데, 그 바람에 내 몸뚱이도 점순이와 겹쳐서 쓰러졌다. 그리고 알싸하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정신을 아찔하게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또 그때 점순이가 한 "내 날 말라"라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 아직도 웃음이 나오고 그 모습이 생각나무 향기처럼 떠오른다.

동백을 보고 있으면 항상 그녀가 떠오른다. 진도인가 신안 어느 바닷가에서 보초를 서던 군인을 무작정 따라 올라왔다는 여고생, 아무것도 모르는 사내에게 운명을 바치고 그레가 가기도 전에 버림받아 툭 떨어진 꽃, 차비를 손에 쥐어 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내 말에 연신 고개를 흔들며, 아버지에게 맞아 죽으나 여기사 죽으나 마찬가지니 돌아갈 수 없다며 이번엔 내 손을 붙들며 울먹이던 그녀, 그 사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섬이 싫고, 도시가 좋아 왔다는 옛된 그 말이 떠오른다.

동백은 나무에서 한 번 피고, 툭 떨어져 땅에서 붉게 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이의 마음에서 붉게 세 번 피고 진다는데, 지금도 어느 누구의 마음을 수줍게 물들이고 있으면 좋겠다.

동백은 많은 사연을 담고 피는 꽃이다. 슬픈 이야기도 애뜻한 이야기도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다. 이 흑한에 동백마저 없었다면 나 혼자 길고 식막한 이 겨울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리 보니 동백은 나를 닮은 것이 아니고 나 또한 동백을 닮은 것이 아니다. 우리 서로 남남이자 서로가 닮았다. 동백이 피었으니 곧 봄이다. 이 녀석이 피었으니 여기저기 게으른 봄 꽃들이 실눈을 뜨지 않겠는가.

오는 주말에는 동백을 보러 강진이나 신안으로 갈까. 옹공도로 갈까. 먼저 여수에 들러 일박하고 다음날 강진에서 점심을 먹고 신안이나 완도에서 또 하룻밤을 묵는 히는남도 여행, 동백 여행도 괜찮을 것 같다.

기고

팬데믹 시대 블루오션 '관상어 산업' 육성을



박종원
전남도의원(담양)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로 우리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외출과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 '집콕' 생활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취미 활동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중 소위 '몰명'이라 불리는 '몰 생활'이 새로운 여가활동으로 주목 받고 있다.

'몰명'이란 수족관속 물고 관상어, 수초의 움직임을 오래 바라보며 마음의 평온을 누린다는 신조어다. 소위 집안에서 '몰 생활'을 즐기는 '몰명족'이 늘어나면서 국내 관상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관상어를 '반려어'라 부르며 반려동물 시장과 함께 그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는 2027년 6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상어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개와 고양이와는 달리 복합 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관상어 산업은 1차(종자 생산·양식), 2차(관련 용품), 3차(사육·관리·전시 서비스)까지 연계되는 복합 산업이며, 육종·품종 개량, 유전자 조작, 어병 관리 등 첨단 생명과학 기술이 요구되는 녹색 생

명산업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2014년 '관상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16년에는 '제1차 관상어 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어 지난해에는 1차 계획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2차(2021~2025)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고 다시 한 번 관상어 산업 육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자체 또한 관상어 산업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 시흥에는 아쿠아 콘텐츠와 소핑 문화가 융합된 국내 최대의 '아쿠아 팻랜드'가 올해 준공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관상어의 생산과 판매, 용품 제작, 교육,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수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상어 ICT 융복합 육종센터(충북 옥천), 토속 어류 산업화센터(경북 의성), 관상어 종자 육종센터(경남 사천),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경북 상주)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남도에서는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하여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첫째, 관상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 관상어 산업은 식용어 양식 위주의 연구에 밀려 인프라 및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관상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상어와 용품 모두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내 업체의 진입이 어렵다. 또한 별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으로 해수 관상어의 현지 포획을 금지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관상어의 양식 산업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듯 전남도에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관상어를 우리만의 경쟁력을 갖춘 어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생산

기술을 확보하는 등 관상어 가치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 전남형 관상어 반려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올 바름 관상어 반려 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 도에서는 해양수산과학관(여수), 섬진강어류생태관(구례) 등 관상어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을 활용하여 요즘 한창 인기를 끄는 '아쿠아테리아' (아쿠아+인테리어)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신만의 수조를 꾸밀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통해 매니아층을 다지고 입문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셋째, 관상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교육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관상어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상어를 직접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육 기술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내 교육기관들을 활용하여 관상어 애호가 및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 지식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관상어 사육 기술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상어 사육은 관상어 특성에 따라 수족관 관리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관상어 애호자에게 품종별 맞춤형 사육 교실을 운영하여 관상어 소비 확대에 이바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남도형 관상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할 수 있는 '관상어 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수립해 고부가가치 관상어 산업이 전남도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社說

안철수 후보 '철수 안 한다' 대선에 미칠 영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13일 후보 등록 직후 윤 후보에게 여론조사 국민경선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번 대선의 막판 최대 변수로 거론됐던 야권 단일화가 일단 결렬됨으로써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일주일 기다리고 지켜보았다"며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안 후보는 "또 철수하려 하느냐는 비판과 조롱을 끼쳐어 감수하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에 승부수를 던졌지만 윤 후보는 일주일도 지나도록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며 결렬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일주일간 무대응과 일련의 가짜뉴스 퍼뜨리기를 통해 제1야당은 단일화 의지도 진정성도 없다"는 점을

충분하고 분명하게 보여 주겠다"며 "그래서 더 이상 답변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비록 험하고 어렵더라도 저는 제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며 "아무리 큰 실리가 보장되고 따뜻한 길일지라도 옳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완주 의사를 밝혔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기자들과 만난 윤 후보의 새로운 제안에도 응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의 단일화 제안에 관해서는 "어떤 제안도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물 건너간 만큼 여권에서 안 후보에게 손길을 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막판 후보 간 담판을 통한 단일화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은 것 같지는 않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단일화 문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어떤 양 후보의 결렬 선언이 남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확진자 폭증 속 방역 완화 의료체계 쉼장을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세 속에서 정부가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등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방역망과 의료 체계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는 그제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 시간 제한을 밤 9시부터 밤 10시로 한 시간 연장했다. 대신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6인'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러한 조치가 확산세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확진자 역제를 위해서는 사적 모임 제한보다 영업시간 제한이 더 효과적일 수단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전남의 신규 확진자는 그제 4725명에 달하는 등 연일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이날 말개는 하루 1만 명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나마 코로나 치료 병상 가동률은 31.4%로 안

정적이지만 위중증 환자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조만간 의료 체계가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여기에 최근 병원엔 물론 공공서발 집단 감염이 속출해 공공서비스 등 사회 필수 기능 마비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조직이나 직장 내 '첫 감염자 낙인'을 우려해 자가 검사를 꺼리는 등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 때문에 '숨은 감염자'들이 곳곳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염 경로조차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쏟아지고 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창궐로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시민 스스로 자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셀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에 대비해 의료 대응 체계를 세심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트럭을 타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죽어 누워 있는 게 보였어. 짧게 깎은 머리가 파르스름한 게 썩 햇빛에 돌아나 감자 싹 같았지. 그렇게 감자처럼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 도망치다 넘어진 모습 그대로 같이얽은 들판에 죽어 누워 있었어... 꼭 감자처럼..."

2015년 노벨상 수상 작가 스페를라나 알렉시예비치(74)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문학동네)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일부다. 작가가 오랜 기간 수백 명을

인터뷰해 논픽션 형식으로 묶어 낸 이야기이다.

우크라이나의 슬픔

우크라이나의 슬픔이라는 알렉시예비치의 다큐멘터리 산문은 전쟁에 밀려든 여성들의 체험을 강렬하면서도 절절하게 풀어낸다. 2차 세계대전을 겪은 100만 명이 넘는 여성 중 그 누구도 기억되지 못하는 현실을 작가는 고발한다.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어야 했던 여성들은 그 후 어떻게 됐으며 그들의 삶에서 전쟁은 어떤 의미였을까? 1948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알렉시예비치는 그동안 사회성 짙은 글을 써 왔다. 또 다른 작품 '체르노빌의 목소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원전 폭발 사고를 다

뤼다. 마을 주민, 어린 소녀, 엔지니어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국가적 재난과 위기, 사랑과 죽음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다. 땅이 넓고 비옥한 천혜의 환경을 갖췄지만, 동방으로 진출하는 유럽 열강과 흑해와 지중해로 진출하려는 러시아가 부딪히는 요충지다. 그레 역설적으로 빈번한 외세의 침략을 받았으며 폴란드를 비롯해 독일·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것도 때문이었다. 1930년대에는 스탈린의 집단농장

정책으로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을 선언했지만 그동안 '친러시아'와 '친서방'의 권력이 교차하면서 동·서로 지역 분열이 심화됐다. 나토 가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적국의 일축적발 위기는 지정학적·역사적 관점에서 우리의 구한말을 떠올리게 한다. 무엇보다도 나라의 운명은 아랑곳없다는 듯 오직 대선 승리만을 위해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여야의 모습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슬픔'을 읽는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박성진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